

광주대 LINC+ 현장실습 우수 사례 시상 수기 공모전 49편 접수...최아라 씨 대상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는 최근 학교 호심관 3층 판타지 랩에서 LINC+사업 현장실습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광주대 LINC+사업단은 교육과정제에 대한 성과와 우수사례, 경험 등을 공유하고 우수성과를 확산시켜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기 공모전을 마련했다.

LINC+ 수기 공모전에는 총 49편이 접수됐으며, 3D프린팅을 활용한 도시재생 건축가 양성 트랙(건축학부 건축학전공)에 참여한 최아라(3년)씨가 대상을 받았다.

IOT융합서비스개발 트랙(융합소프트웨어학과) 고재영(3년)씨와 웰니스 인테리어디자인 트랙(인테리어디자인학과) 임소형(3년)씨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3D프린팅을 활용한 도시재생 건축가 양성 트랙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김진이(3년)씨 등 3명은 우수상, 자반기반 SW개발 및 시스템관리 트랙(컴퓨터공학과) 조문규(4년)씨 등 4명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정근 광주대 LINC+사업단장은 "이번 현장실습 수기 공모전을 통해 PBL기반 현장실습 성과 확산의 기회가 됐다"며 "산업체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대 LINC+사업 사회맞춤형학과는 사회맞춤형 동아리와 산학프로젝트, 공모전, 경진대회, 지역혁신프로젝트 등 다양한 PBL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기간 동안 LINC+ 사업 참여 학부(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해 현장 실무교육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야구선수, 여자 국가대표도 있습니다”

광주 출신 여자야구 국가대표 투수 유수경·내야수 강정희 씨

단체로 하는 스포츠에 매력 평일엔 직장인 주말엔 선수 변신 남자 경기와 경기 규칙 같아 11월 아시안컵 출전 준비중

“두드러면 열립니다.” KIA와 키움의 경기가 열린 지난 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레이디스 데이’ 행사가 열렸다. 여성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고, KIA 선수들은 핑크 유니폼을 입고 경기 를 뛰었다.

경기 전에는 ‘여성 파워’를 보여주는 시구와 시타가 진행됐다.

‘국가대표’ 투수 유수경(31·CMS여자야구단)과 내야수 강정희(33·서울리얼디아몬드)가 태극마크 유니폼을 입고 등장해 관중의 박수를 받았다.

김세인 한국여자야구연맹 부회장과 경기장을 찾은 두 사람은 광주 출신으로 주중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주말에는 그라운드를 누비는 여자야구 국가대표다. 사실 이들은 운동과 관련이 없는 보통 학생들이었다.

유수경은 야구부가 있는 무등중을 다니면서 야구에 관심을 가졌다. 우연히 LG배 한국 여자야구대회 중계방송을 보고 광주에도 여자야구팀(스윙이클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씨름의 삶이 바뀌었다.

야구 매력에 푹 빠진 유수경은 경기가 많

고, 인프라가 좋은 곳을 찾다가 서울로 팀을 옮겼다. 광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그는 주말에는 서울로 가 야구선수로 변신한다.

열정에 실력까지 인정받아서 올해 처음 대표팀에도 발탁됐다. 스리쿼터인 유수경은 목직한 직구와 쉽게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강점이다.

“야구는 밖에서 여럿이 단체로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재미있다. 재미있으니 무조건해야 한다”며 웃은 유수경은 “처음에는 국가대표가 됐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사실 지금도 그냥 언니들과 노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조대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로 진학한 강정희는 올해로 야구 10년 차 베테랑이다.

평소에는 아이들과 야구를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지만 유니폼을 입으면 달라진다. 대표팀의 4번 타자인 그는 부산 기장에서 열린 2016 국제야구소프트볼연맹(WBSC) 세계 여자야구월드컵대회에도 출전했다.

강정희는 “야구를 좋아했지만 할 생각이 없었다. 여자 야구는 없는 줄 알았다”며 “친구들에게 농담으로 국가대표가 될 거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재미있었다. 첫 국제대회 때는 선발 투수로 나가야 해서 긴장만 했었다(웃음). 국제대회니까면 애국심도 들고 재미있다”고 언급했다.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됐지만 사람들의 우려와 시선이 이들을 막기도 했었다.

유수경은 “야구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남자랑 똑같이 하나는 것이 다. 규격은 같은지, 공이 흡플레이트까지 가는 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 똑같이 한다”며



지난 7일 KIA와 키움의 경기 시구·시타를 맡은 한국여자야구대표팀 투수 유수경(왼쪽), 내야수 강정희(오른쪽)가 한국여자야구연맹 김세인 부회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속살할 때도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야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남자 선수들과 달리 주말에만 연습을 할 수 있고, 대회 출전을 위해 회사를 빠져야 하는 게 이들의 어려움이기도 하다.

강정희는 “주변에서 위험하니까 하지말라고 말했었다. 부모님도 반대하셨는데 대회에서 미기상 상품으로 김치 냉장고를 받아왔다. 그 뒤로 안 말리셨다(웃음)”며 “당연히 하는 게 돼서 지금은 야구 위주로 살고 있다. 그래

도 지금은 예전보다는 야구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너무 놀라거나 이리저리는 않는다. 여자 야구도 많이 알고, 이제는 멋있다고 많이 생각해주신다”고 이야기했다.

“두드러면 열린다. 야구에 빠지면 못 나간다”며 웃은 두 사람은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2019 제2회 BFA(아시아야구연맹) 여자야구 아시안컵’ 선전을 다짐했다. 이 대회에서 4위 안에 들면 ‘WBSC 여자야구월드컵 2020’에 출전하게 된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아시아문화원, 추석 맞이 전 직원 ‘청렴캠페인’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청렴캠페인’을 진행했다.

<아시아문화원 제공>

광주 매곡동 상가번영회 매곡로 일원 정화활동



광주시 매곡동 상가번영회·자생단체는 최근 광주시 북구 매곡로 일원에서 내 상가, 내 집 앞 청소하기 등 ‘주민참여 클린공동체’ 활동을 했다.

<매곡동 주민자치위원회 제공>

한국혈전지혈학회 광주 추계학술대회 성료

국내 석학 300여명 참가

한국혈전지혈학회(회장 정명호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이사장 안영근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최근 광주 추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 지난 6일부터 이틀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혈전지혈학회의 석학들과 의료 관계자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혈전 및 지혈 치료법의 최신 동향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 열렸다.

특히 이번 학회는 내년 9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혈전지혈학회(Asia Pacific Society of Thrombosis and Hemostasis)를 앞두고 열리는 예비 학술대회의 성격도 있어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총 10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학회에선 혈소판 감소증, 정맥혈전증의 진단과 급성기 치료 그리고 일본의 사토시 후지 교수의 ‘수술 후 치료의 진단과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주제 강연이 있었다.

또 동맥혈전증에 대해서는 심방세동·뇌졸



중·이중항혈소판제·항응고제 등에 대한 최신 지견, 혈관생리·동맥치료법·혈우병 검사 등의

토론이 펼쳐졌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김형배 고구려대 총장 광주·전남 전문대 총장협의회장 취임

고구려대학교 김형배 총장이 최근 광주·전남지역 전문대학총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광주·전남지역 전문대학 총장협의회는 현재 15개 전문대학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대학 간의 협조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김 신임 회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간의 협조를 통한

상호발전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광주·전남 지역대학이 서로 긴밀히 유대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위기를 이겨내자”고 말했다.

김형배 회장은 앞으로 2년간 광주·전남지역 전문대학 회장 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의 상반기 정기총회에서는 전남도립대학교의 김대중 총장과 한영대학교의 임정섭 총장을 이사 및 감사로 각각 선출했다. /채희중 기자 chae@

한국 시사만화의 상징 ‘고바우 영감’ 김성환 화백 별세

한국 시사만화의 상징과도 같은 ‘고바우 영감’을 낳은 김성환 화백이 지난 8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한국만화가협회에 따르면 김 화백은 이날 오후 3시 45분 노환으로 타계했다.

1932년 황해도 개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남다른 그림 솜씨로 17세에 연합신문 전속 만화가로 데뷔했으며, 한국전쟁 후 한국 만화계를 세우고 이끌었다.

그가 그린 네 컷 ‘고바우 영감’은 격동기 세

태를 풍자하고 우리 국민의 애환을 대변하는 시사만화로 자리매김하면서 독자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다.

1958년 경무대(현청와대)의 절대권력을 비판했다가 만화임에도 허위보도 유죄 선고를 받은 ‘경무대 통통 사건’은 유명한 일화다.

‘고바우 영감’은 1955년부터 2000년까지 1만4139회 연재돼 단일 만화로는 우리나라 최장수 시사만화로 2001년 한국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원화는 2013년 2월 근대만화 최초로 등록문화재(제538호)가 됐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33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조충기(전 조선대 입학부처장)·김광숙(동아여중 교사)씨 장남 철진군, 김성호·한인수씨 장녀 미수양=21일(토) 오후 2시 서술시 송파구 문정동 더컨벤션 송파문정 13층 아모르홀.

종친회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이화월례회(회장 이동재)=10일(화) 오후 6시 지원회의실3층 062-225-5636.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청년이화월례회(회장 이태웅)=17일(화) 오후 7시 지원회의실3층 062-225-5636.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여성이화월례회(회장

이보희)=23일(월), 오전 11시 지원회의실 3층 062-225-5636.

알림

▲광주지하철예술무대 무료공연=10일(화) 임석인과 좋은친구들 오후 3시 상무역, 11일(수) 하모니예술단 오후 2시 농성역.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추진의용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등 매 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

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

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출덕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화순 호사량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동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모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드론조종분야 교육과정 훈련생 모집=만 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드론조종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기간 6개월,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061-320-7024.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전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